

회원사 분리발주 수주 현황

(10월 21일~11월 20일)

(5억원 이상)

번호	실수요기관	공고명	개찰일시	업체명	대표자	낙찰금액(원)	회원사지역
1	전라북도군산교육청	전라북도군산교육청	10.27	(유)화남엔지니어링	최홍규	651,448,580	전북
2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장애인근로사업장 건립 공조 및 폐수처리설비공사	11.2	(주)서남	채남호	535,183,860	대전· 충남
3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선학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상부분)	11.3	(주)웅산엔지니어링	오세복	518,209,549	인천
4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연수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	11.3	(주)제일삼보이엔지	박종환	587,389,000	인천
5	광주광역시교육청	(가칭)첨단2초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11.4	(주)주현건설	김승길	703,535,840	광주· 전남
6	경북대학교 사무국 경리과	경북대학교 화학관(구관) 보수 기계설비공사	11.6	보명기업(주)	장수환	689,168,790	대구
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열시스템 설치공사	11.11	(유)세한이엔지	유수호	585,764,000	전북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야생동물이 키운 아이

정글북의 모글리처럼 실제로 야생동물에게 길러진 아이들이 있다.

1920년 동부 인도 미드나포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부터 개간지 근처에 있는 구멍에서 두 환영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목사 조세프 싱은 이것의 정체를 알아 내려고 개간지 근처의 구멍이 내려다보이는 나무 위에 올라 잠복을 했다. 한참 뒤 그 구멍에서 이리 무리가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굴 속에서 함께 여자아이들이 섞여 있었다. 18개월짜리 아이와 일곱 살짜리 아이였으므로 고아원에 보내졌으나 네 발로 달리거나 이리처럼 울부짖는 아이들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작은 아이 아말라는 1년 뒤에 죽고 말았고, 큰 아이 카말라는 열여섯 살까지 살면서 서서 걷고 30여 개의 단어를 말하게 되었으며 익힌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다.

1972년 인도 우파 프라데쉬주의 한 동굴에서 암곰에게 길러진 아이도 있다. 한 사냥군이 곰의 굴 앞에서 새끼이리들과 놀고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고는 인간 세계로 데리고 나왔다.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안식처에서 수녀들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1985년에 죽었다.

인도의 한 마을 사람들은 큰 호랑이가 새끼들과 함께 5~6세 가량 된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호랑이에게서 떼어내어 마을에 있는 초막에 가두어 키웠다. 마을 사람들은 암호랑이가 이 아이들이 있는 마을에 와서 울부짖거나 초막 주의를 돌았기 때문에 죽이고 말았다. 그 뒤 촌장이 이 아이를 키웠지만 어른이 된 뒤에 정글에 가서 호랑이들과 지내고는 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